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441>

JCCT 2021-11-55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및 도덕적 민감성이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wareness and Moral sensitivity of standard precautions on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s

장희정*, 모문희**

Hee-jung Jang*, Moon-hee Mo**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및 도덕적 민감성과 표준주의 수행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에 재학중인 201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과 표준주의 수행정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준주의 인지도($\beta=.78$, $p<.001$)였으며, 설명력은 60.5%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주의 인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 표준주의 지침 수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knowledge, awareness, and moral sensitivity,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and to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n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leted by 201 nursing students from 2 colleges in D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 to 20,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the ANOVA,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ver. 21.0.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of standard precaution, awareness of standard precaution, and moral sensitivity on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The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of the study subjects were awareness of standard precaution($\beta=.78$,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60.5%. The development of awareness of standard precaution education program that focuses awareness of standard precaution change is needed.

Key words : Nursing students, Knowledge, Awareness, Moral sensitivity, Performance, Standard precautions

*정희원,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10월 6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30일

Received: October 6, 2021 / Revised: October 21, 2021
Accepted: October 30, 2021
*Corresponding Author: mhmo1@ync.ac.kr
Dept.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관련 감염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 미국 질병관리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혈액과 체액뿐만 아니라 신체분비물, 배설물, 피부 및 점막의 개방성 상처 부위 모두를 잠재적 감염원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노출을 피하도록 하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SP)를 발표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활용되고 있다[1].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한 근거 중심의 지침을 바탕으로 무균술, 손 위생, 전과 경로별 격리지침 및 의료기관의 환경 관리와 삼입기구 등의 감염예방지침 내용을 포함한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

의료인에게 있어 표준주의 지침수행은 감염관리를 위한 전략이며, 환자와의 접촉이 가장 많은 직종인 간호사는 병원감염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과정 중 1,000시간 이상을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해야 한다[4].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인 임상실습 시에 간호활동에 대한 관찰뿐만 아니라 환자면담, 활력징후 측정, 이동보조 등의 직접적인 기본간호 활동을 제공하면서 환자와 접촉 기회가 많다[5]. 또한 간호대학생의 71.5%가 임상 실습 중 주사침 상해, 날카로운 기구 손상, 혈액 및 체액 접촉 등의 노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6].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에 비해 병원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간호 상황에 익숙하지 않으며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7].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은 향후 간호사가 되어 임상실무 수행에도 연결되므로 장기적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8].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은 의료관련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주의 수행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주의 지식, 인지도와 수행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표준주의에 대한 지식도와 수행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9][10],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료관련 감염예방에 대한 인지도, 의료기관의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태도, 감염관리 교육내용, 감염성질환에 직접적 노출[11]과 표준주의 지식도, 표준주의 인지도[12], 표준주의 수행에 대한 의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13]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간호행위는 대상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능력의 핵심요소인 도덕적 민감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14], 향후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에게 표준주의 지침 수행을 높이기 위해 도덕적 민감성을 함양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 중에서 표준주의 지침 지식, 표준주의 지침 인식도, 도덕적 민감성을 중심으로 이들 요인들이 간호대학생들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및 인지도가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표준주의 지침 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표준주의 지침 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수행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으로 최소 1년(2학기)의 임상실습을 마친 대상자로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15].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요인 8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160명이 요구되어 탈락률 고려하여 21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이중 설문참여를 동의한 201명으로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수율은 95.7%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1)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은 2005년에 개정된 병원 감염통제자문위원회(Hospital Infection Control Practice Advisory Committee, HICPAC)의 표준주의 지침 내용을 Cho[16]의 문항을 Suh와 Oh[1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정답은 1점, 모르겠다면 오답은 0점으로 평균점수는 0-1점 범위를 나타내 점수가 높을수록 표준주의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인지도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인지도는 2007년 개정된 CDC의 표준주의 지침[18]을 Jung[19]이 번역한 내용을 Hong[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감염 예방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인지도는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표준주의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가 .95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가 .98이었다.

3)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 도구는 Litezen 과 Nordin[21]이 개발한 도덕적 민감성 설문지(The Moral Sentitivity Questuonnaire, MSQ)를 Han, Kim, Kim과 Ahn[22]이

한국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판 도덕적 민감성 설문지(K-MSQ)를 본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7문항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78$ Han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4) 표준주의 지침 수행

표준주의 지침 수행은 2007년 개정된 CDC의 표준주의 지침[1]을 Jung[19]이 번역한 내용을 Hong[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표준주의 지침의 손위생, 개인보호구, 호흡기에티켓, 치료기구와 물품, 환경관리, 안전한 주사행위, 린넨, 직원안전의 8개 영역 총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표준주의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가 .95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가 .97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설문 응답 시 심리적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위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연구보조원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보조원은 간호대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고, 자료 분석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및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본 연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에게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10~20분이었다.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표준주의 수행 정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식, 표준주의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 표준주의 수행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표준주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 단계적(stepwise) 선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와 연구의 윤리적 절차를 위해 Y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IRB NO:201904-07), 모든 대상자는 서면 동의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전체 대상자 201명의 평균연령은 23.3±2.4세였다. 성별은 여학생 162명(80.6%), 남학생 39명(19.4%)이었고, 감염교육을 받은 학생은 196명(97.5%), 받지 않은 학생 5명(2.5%)이었으며 감염교육 받은 기관은 학교와 병원에서 다 받은 학생 129명(65.8%), 학교에서 받은 학생 58명(29.6%), 병원에서 받은 학생 9명(4.6%)이었다. 실습 동안 주사바늘에 찔린 경험이 있는 학생은 12명(6.0%), 없는 학생 189명(94.0%)이었으며,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 16명(8.0%), 없는 학생 185명(92.0%)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표준주의 수행 정도는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이 유의하게 표준주의 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며(t=-2.03, p=.047), 감염교육 유무, 감염교육 받은 기관, 주사바늘에 찔린 경험 유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 경험 유무는 표준주의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2. 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 표준주의 수행정도

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 표준주의 수행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표준주의 지식은 1점 만점에 0.80(±0.09)점, 표준주의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표준주의 수행정도

Table 1. Differences in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t/F(p)
		n(%)	Mean±SD	
Age			23.3±2.4	
Sex	Female	162(80.6)	4.75±0.32	-2.03(.047)
	Male	39(19.4)	4.62±0.50	
Infection control education	Yes	196(97.5)	4.73±0.38	-0.37(.712)
	No	5(2.5)	4.78±0.35	
Place of education	University	58(29.6)	4.63±0.46	2.88(.059)
	Hospital	9(4.6)	4.71±0.42	
	University and hospital	129(65.8)	4.77±0.31	
Experience of needle injury	Yes	12(6.0)	4.83±0.21	1.57(.135)
	No	189(94.0)	4.72±0.37	
Contact with patient's blood or body fluid	Yes	16(8.0)	4.59±0.34	-1.63(.106)
	No	185(92.0)	4.74±0.37	

인지도는 5점 만점에 4.76(±0.38)점,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평균 5.18(±0.58)점으로 나타났다. 표준주의 수행 정도는 평균 4.73(±0.37)점이었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하위 영역은 직원안전이었고 다음으로 안전한 주사행위, 치료기구와 물품, 개인보호구, 린넨, 환경관리, 호흡기 에티켓 순으로 나타났다(표2).

표 2. 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식, 표준주의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 표준주의 수행 정도

Table 2. Degree of knowledge of Standard precaution, Awareness of standard precautions, and Moral sensitivity,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s (N=240)

Variables	M±SD	Actual range
Knowledge of standard precaution	0.80±0.09	0.29-0.92
Awareness of standard precaution	4.76±0.38	3.03-5.00
Moral sensitivity	5.18±0.58	3.78-6.63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4.73±0.37	3.06-5.00
- Hand hygiene	4.67±0.45	3.00-5.00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4.72±0.43	3.00-5.00
- Respiratory etiquette	4.65±0.57	1.67-5.00
- Patient care equipment	4.78±0.40	3.00-5.00
- Care or the environment	4.67±0.53	2.00-5.00
- Linen	4.72±0.50	2.50-5.00
- Safe injection practices	4.79±0.41	3.00-5.00
- Worker safety	4.83±0.37	3.00-5.00

3. 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과 표준주의 수행과의 상관관계

표준주의 지식, 표준주의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과 표준주의 수행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표준주의 수행과 표준주의 지식($r=.20, p=.005$), 표준주의 수행과 표준주의 인지도($r=.78, p<.001$), 표준주의 수행과 도덕적 민감성($r=.38,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의 지식과 표준주의 인지도($r=.25, p<.001$), 도덕적 민감성과 표준주의 인지도($r=.48, p<.001$)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 3. 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식, 표준주의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과 표준주의 수행과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knowledge of Standard precaution, Awareness of standard precautions, and Moral sensitivity,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s

Variable	Knowledge of standard precaution	Awareness of standard precaution	Moral sensitivity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r(p)	r(p)	r(p)	r(p)
Knowledge of standard precaution	1	.25(<.001)	.01(.89)	.20(.005)
Awareness of standard precaution		1	.48(<.001)	.78(<.001)
Moral sensitivity			1	.38(<.001)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1

4. 대상자의 표준주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표준주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성별을 포함시키고 표준주의 수행과 상관관계를 보인 표준주의 지식, 표준주의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을 단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성별은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분석에

표 4. 대상자의 표준주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Variables	B	SE	β	t	p	R2	Adj. R2	F(p)
(Constant)	-.99	.21		4.61	<.001	.607	.605	304.21 (<.001)
Awareness of standard precaution	.78	.05	.78	3.07	<.001			

대한 오차의 자기 상관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80으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778 ~ .962로 1.0이하였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40~1.286으로 기준인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표준주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준주의 인지도($\beta=.78, p<.001$)였으며, 표준주의 인지도가 표준주의 수행에 설명력은 60.5%로 나타났다(표4).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표준주의 지침 인지도 및 도덕적 민감성이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표준주의 지침 수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주요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침 지식은 1점 만점에 0.80(± 0.09)점으로 Yu[23]의 연구에서 36점 만점에 34.13점, Seo, Jung[24]의 연구에서 25점 만점에 20.08점, Jeong[6]의 연구에서 25점 만점에 20.59점, Hong et al.[20]의 연구에서 29점 만점에 24.27점, Cho, Choi[16]의 연구에서 20점 만점에 18.7점 등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마다 다른 표준주의 지침 지식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점수의 비교는 어려우나,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80점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침 지식 정도는 병원감염관리와 관련된 지식은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감염관리 개선과 교육으로 감염지식 수준이 올라간 것으로 사료된다.

표준주의 지침 인지도는 5점 만점에 4.76(± 0.38)점으로 Lee et al.[25]연구에서 5점 만점에 4.77점, Yu[23]의 연구에서 3점 만점에 2.58점, Hong[20]의 연구에서는 4.50점, Jeong[26]의 연구에서는 4.67점, Choi et al.[27]의 연구에서 4.59점 비교하면 유사하나 약간 높게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이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덕적 민감성은 본 연구에서 7점 만점에 평균 5.18 점으로 Song, Leel[24]연구에서 7점 만점에 4.91점,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는 7점 만점에 5.00점으로 본 연구결과가 더 높았다. 본 연구의 도덕적 민감성 점수가 선행연구[28]보다 더 높은 것은 연구대상자의 교육과 훈련 기간의 차이인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교육과 훈련 및 경험으로 인해 도덕적 민감성이 축적되었으므로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Han[29]연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덕적 민감성이 유의한 증가를 보인 점에서 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표준주의 수행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73점이었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하위 영역은 직원 안전이었고 다음으로 안전한 주사행위, 치료기구와 물품, 개인 보호구, 린넨, 환경관리, 호흡기 에티켓 순으로 나타났다. Hong[20]의 평균 수행도 4.26점, Yu[23]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4.38점, Lee et al.[25]의 연구에서 5점 만점 중 4.45점, Jeong[26]의 4.25점, Choi et al.[27]의 4.34점과 비교하면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수준에 비해서는 표준주의 지침 수행 정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간호대학생들은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표준주의 지침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과 표준주의 지침 수행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표준주의 지침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에 대한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수행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임상실무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표준주의 지침 인식도로 종속변수의 6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eong[26], Seo, Jung[30] 등이 표준주의 인지도가 수행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적으로 임상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및 도덕적 민감성이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수행은 표준주의 지식, 표준주의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주의 인지도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60.5%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면적으로 고려하여 표준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epidemiology and laboratory capacity(ELC) for infectious disease program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HAIs) grantee meeting". 2009. DOI : http://www.cdc.gov/hai/recoveryact/pdf/oct09/5-0130_sri_nivasan_HAI_prevention_day1.pdf.
- [2] H.Y. Kim, E.S. Lee, "Effects of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care activities among nurses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9, No. 1, pp.46 - 54, 2013.
- [3] K.H. Lee, J.O. Choi, K.S. Lee, J.A. Hur, and T.Y. Hwang,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Compliance with Hospital Infection Standard Precautions,"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 19, No. 2, pp. 34-43, 2014.
- [4] B.H. Kim, H.Y. Kang, "Knowledge, Perception, and Attitude related to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of Student Nurses :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2, pp. 139-147, 2019.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9.20.12.139>
- [5] D.L. Han, K.S. Seo, E.S. Kim, and H.E. Kim, "Influences of Moral Sensitivity and Safety

- Environment on Compliance with Standard Precautions among Nurse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3, pp. 364 - 375, 2018.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3.364>
- [6] M.H. Jeong, “Survey of Exposure to Blood and Body Fluids, Knowledge, Awareness and Performance on Standard Precautions of Infection Control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4, pp. 316-329, 2015. DOI :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4.316>
- [7] G.L. Kim, E.S. Choi,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n Management for Nosocomial Infection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1, No. 3, pp. 232-240, 2005.
- [8] J.M. Kim, S.H. Lee,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related to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229-238, 2012. DOI :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229>
- [9] S.Y. Yang, H.N. Lim, “Awareness and Performance on Standard Precautions of Hospital-acquired Infection Control in Nursing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3, No. 4, pp. 378-388, 2017. DOI : [10.5977/jkasne.2017.23.4.378](https://doi.org/10.5977/jkasne.2017.23.4.378)
- [10] J.E. Cha, J.Y. Cho, Y.G. Kim, G.H. Nam, S.Y. Lee, and A.R. Lee. et al., “Nursing Students’ Safety-Climate,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s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8, pp. 72-83. 2017. DOI : [10.5762/KAIS.2017.18.8.72](https://doi.org/10.5762/KAIS.2017.18.8.72)
- [11] J.L. Choi, I.S. Ko, and Y.Y. Yim,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Nursing*, Vol. 23, No. 2, pp. 136-148, 2016. DOI : [10.7739/jkafn.2016.23.2.136](https://doi.org/10.7739/jkafn.2016.23.2.136)
- [12] S.J. Lee, J.Y. Park and N. Jo, “Influence of Knowledge and Awareness on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of Standard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3, No. 4, pp. 347-358, 2017. DOI : [10.11111/jkana.2017.23.4.347](https://doi.org/10.11111/jkana.2017.23.4.347)
- [13] M.S. Kim, and J.S. Kim, “Predictors for Standard Precautions Compliance in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12, pp. 569-581. 2017. DOI : [10.5392/JKCA.2017.17.12.56](https://doi.org/10.5392/JKCA.2017.17.12.56)
- [14] S.S. Han, Y.S. Kim, J.H. Park, S.H. Ahn, K.H. Meng, and J.H. Kim, “A study of the moral sensitivity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Vol. 10, No. 2, pp. 117-124, 2007.
- [15] S. Mayr, E. Erdfelder, and F. Faul, “A short tutorial of GPower,”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Vol. 3, No. 2, pp. 51-59, 2007. DOI : https://www.psychologie.hhu.de/fileadmin/redaktion/Fakultaeten/Mathematisch-Naturwissenschaftliche_Fakultaet/Psychologie/AAP/gpower/GPowerShortTutorial.pdf
- [16] G.L. Cho, J.S. Choi, “Knowledge of and compliance with standard precautions by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7, No. 1, pp. 73-81. 2010.
- [17] Y.H. Suh, H.Y. Oh, “Knowledge, Perception, Safety Climate, and Compliance with Hospital Infection Standard Precautions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6, No. 1, pp.61-70, 2010.
- [18] J.D. Siegal, E. Rhinehart, M. Jackson, L. Chiarello,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care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Vol. 35, No. 2, pp. s65-s164, 2007. DOI : <https://doi.org/10.1016/j.ajic.2007.10.007>
- [19] S.Y. Jung, “The structural model for hand hygiene of infection prevention activities in hospital nurses,”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Ewha Womands University, 2011.
- [20] S.Y. Hong, Y.S. Kwon, and H.E. Park, “Nursing Students’ Awareness and Performance on Standard Precautions of Infection Control in the Hospita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293-302, 2012. DOI :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293>
- [21] K. Lutzen, C. Nordin, “Conceptualization and instrumentation of moral sensitivity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Vol. 4, pp. 241-248, 1994.
- [22] S.S. Han, J.H. Kim, Y.S. Kim, and S.H. Ahn,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Moral Sensitivity

- Questionnaire,” *Nursing Ethics*, Vol. 17, No. 1, pp. 99-105, 2010. DOI : <https://doi.org/10.1177/0969733009349993>
- [23]H.S. YU,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on Standard Precautions of Infection Control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9, No. 4, pp. 2205-2217, 2017. DOI : [10.37727/jkdas.2017.19.4.2205](https://doi.org/10.37727/jkdas.2017.19.4.2205)
- [24]Y.S. Song, J.Y. Le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2, pp. 157-166, 2020.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2.157>
- [25]S.J. Lee, J.Y. Park, and N.R. Jo, “Influence of Knowledge and Awareness on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of Standard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3, No. 4, pp. 347-358, 2017. DOI : <https://doi.org/10.11111/jkana.2017.23.4.347>
- [26]M.H. Jeong, “Survey of exposure to blood and body fluids, knowledge, awareness and performance on standard precautions of infection control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4, pp. 316-329, 2015. DOI : [10.5392/JKCA.2015.15.04.316](https://doi.org/10.5392/JKCA.2015.15.04.316)
- [27]J.R. Choi, I.S. Ko, Y.Y. Yim,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3, No. 2, pp. 136-148, 2016. DOI : <https://doi.org/10.7739/jkafn.2016.23.2.136>
- [28]H.Y. Yun, S.K. Kim, H.E. Jang, S.W. Hwang, S.H. Kim, “The influence of moral di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moral courag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21, No. 4, pp. 360-376, 2018. DOI : <https://doi.org/10.35301/ksme.2018.21.4.64>
- [29]D.L. Han, “An Integrative Review of Nursing Ethics Education Programs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 55-62, February 2020. DOI :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55](https://dx.doi.org/10.17703/JCCT.2020.6.1.55)
- [30]J.H. Seo, E.Y. Jung,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on standard precautions of infection control”,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9, No. 2, pp. 69-75, 2017.

※ 이 논문은 2019년도 영남이공대학교의 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